



## 브라운 장로와 크리스찬슨 장로, 12월 2일 서거



브라운 장로



크리스찬슨 장로

지난 12월 2일 두 분의 교회 총관리 역원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병원에서 서거했다.

두 분은

십이사도 평의회의 휴 비브라운 장로와 십이사도 보조인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이다.

총관리 역원 두 분이 같은 날 서거한 것은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 이래 처음이다.

병원 당국의 말에 의하면 크리스찬슨 장로는 흉부 통증을 일으켜 새벽 5시에 입원하였는데 오전 7시 45분에 심장마비 및 그 병발증으로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또한, 92세의 브라운 장로는 고령으로 인한 쇠약 증세로 이날 오후 2시에 세상을 떠났다.

12월 5일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있었던 장례식에 모인 브라운 장로의 동료들은 십이사도 보조와 대관장단 제1보좌 및 십이사도 평의회 일원을 역임한 고

인의 업적을 높이 찬양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이 장례식을 감리하고 집행했으며, 마지막으로 고인을 추도하는 말씀을 했다. 그밖에 대관장단 제1보좌인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평의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가 이 자리에서 추도사를 낭독했다.

크리스찬슨 장로의 장례식은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12월 4일 정오에 거행되었다.

이 장례식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감리하고 마지막 추도의 말씀을 했고 그의 제1보좌인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이 이를 사회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앨 톰 페리 장로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 지역 대표 세미나 보고

제이 엠 토드  
엔사인지 주편집인

1975년 10월 대회에 앞서 가졌던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6월에 갖게 될 새로운 연례 지역 모임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각 지역에서 1년에 한번씩 열리게 될 이 6월 지역 모임은 종전에 각 지역에서 가졌던 연간 2회의 지역 모임을 대신하는 것이며, 본부 보조 조직 대회도 이 지역 모임이 대신하게 된다.

힝클리 장로는, 새로운 지역 모임의 주요 목적은 지도자들에게 교회 프로그램의 연례 지침을 소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역 모임에서 소개되는 지침은 6월 지역 모임이 끝난 후 1977년 3월부터 실시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모임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책임과 그 해에 강조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훈련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 모임입니다.”

그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의 지시 아래 갖게 될 내년도 제1회 6월 지역 모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웠다.

처음으로 스테이크 신권 조직 및 스테이크 각 보조 조직 회장단 전원이 참석하게 된다. 각 스테이크에서 모임에 참석하게 될 역원은 다음과 같다.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집행 서기 및 스테이크 서기: 정원회 회장단, 그룹 자도자 및 보조: 감독단, 와드 집행 서기 및 와드 서기: 스테이크 청년반 및 특별 이해반 평의회 대표(형제, 자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및 서기: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 및 서기: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 주일학교 유년부장 및 서기: 스테이크 청년 책임자, 고문 및 서기, 신권 지도자들은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에게 휴가를 잘 이용하여 “1년에 단 한번 밖에 없는 이 중요한 모임”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고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모임은 총 7시간 내지 9시간 모임으로 거의 하루를 완전히 이 모임으로 갖게 된다.

모든 신권 지도자들은 이 모임에서 신권회 교과 과정과 복음 공부,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 침례, 우정 증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12시부터 갖게 되는 문화 발표에서는 예술품 전시회, 예술 유산, 가사 기술과 시범, 공예품, 수집품, 성공적인 스테이크 행사의 포스터, 소규모의 뮤지컬 또는 연극 등을 발표하여 문화 활동을 강조할 수 있다. 지역 회원들의 문화의 밤을 계획할 수도 있다. 이 행사는 과거에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가졌던 음악제, 무도회, 연극제, 뮤지컬 코메디 또는 로드쇼, 버라이어티 쇼, 재능의 밤, 웅변제 등등을 발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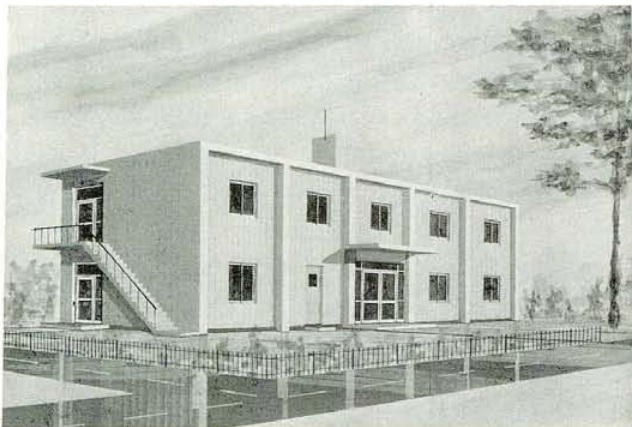
## 부산 동구 지부 건물 신축

지난해 10월 12일 부산 지방 대회에서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은 동구 지부 건물 신축을 교회 본부에서 승인하였음을 발표했다.

또 이날 선교부장 감리하에 열린 노변의 모임에 핸디 형제와 피어슨 형제가 참석하여 신축에 대한 지지를 회원들에게 물어 또한 지부 회원들이 기쁨에 찬 날이기도 했다.

동구 지부는 1963년 10월 부산 지부에서 분리되어 11월에 첫 예배를 보았다.

그후 동구 지부는 성도가 늘어감에 따라 관할 지역을 분할하여 동래, 서면 그리고 광안의 3개 지부로 분리하게 되었으며 현재 방 춘성 지부장을 위시하여 180여명의 회원이 있다.



## 광안 지부 “재능의 밤”

지난해 11월 29일 부산 지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안 지부 재능의 밤”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꽃꽂이, 회화, 스킨자수, 뜨개질, 재봉 등의 솜씨를 자랑하는 많은 작품을 내놓았다. 피아노 독주와 성악을 곁들여 다채로운 모임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의 재능을 통하여 교회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모임이 되었다고 말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고 말했다.

## 세계적 프로 골퍼, 조니 밀러, 빌리 캐스퍼 형제 내한

지난해 10월 31일 미국의 세계적인 프로 골퍼이며 말일성도인 조니 밀러와 빌리 캐스퍼 형제가 내한하였다. 서울 선교부장의 특별 초청으로 내한한 이들은 공항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방한 목적을 묻는 기자에게 “한국에서 골프에 대한 시범 경기를 갖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스테이크에서 갖는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교회 소개를 잊지 않기도 했다.

11월 1일 두 형제는 미8군과 서울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강습회를 가진 후 오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 미8군 사령관, 교통부 장관 등 정부 요인들과 시범 경기를 가저 절묘한 솜씨를 보여 관람객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11월 1일 저녁 7시 4와드에서 가진 특별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여 훌륭한 간증으로 많은 회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 초교파 기독교 협회의 초청을 받은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들

지난해 11월 27일 낮 12시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 2보좌인 최 옥환 형제는 초교파 기독교 협회 월례 모임에 초청을 받아 김 산 고등 평의원, 김 차봉 감독과 함께 2시간 동안 각 교파 원로 목사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소개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김 차봉 감독은 우리 교회가 다른 기성 교회와 다른 점으로서 “구원의 계획”과 “신화”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물문의 내세관, 경전에 대한 견해 등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였으며, 우리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에게는 “성도의 벗”과 “가정의 밤 교재” 및 기타 교회 소개 책자를 나누어 주었으며,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물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 새로운 회원, 오 연한 자매

지난해 9월 5일 대구 중앙 지부에서는 마태인 장로에 의해 훌륭한 회원 한 명이 탄생했다.

우리 나라 배드민턴 대표 선수인 오 연한 자매는 '74년 제7회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여 북한 선수를 이겨 4위를 획득한 바 있으며, 전국 종합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75년 제56회 전국 체육 대회에서 우승을 획득하는 등 훌륭한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전매청 소속이다.

박 인실 자매에 의해 교회를 소개받아 '75년 4월부터 선교사와 복음 공부를 한 오자매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서울에 계시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쁨을 나타냈으며 또한 “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임을 알리고, 항상 복음대로 생활하며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뜨거운 간증을 하였다.



## 부산 선교부의 새로운 선교 지역

부산 선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선교 지역을 발표하였다.

부산 선교부는 지난해 10월 27일 4명의 선교사를 부산 영도에 보냈으며, 11월 24일에는 4명의 선교사를 순천으로 보냈다.

이들 선교사는 “회복된 복음에 흥미를 갖게 될 훌륭한 가족을 곧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대하고 있다.

## 전주 지방부 발족

수년 동안 여러 지방부에 소속되어 왔던 전주 지부에 지난해 11월 23일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은 지방부의 발족을 발표하였다.

이 모임에서 초대 지방부장으로 박 주인 형제가 지 지되었으며 그는 제1보좌로 허 준 형제, 서기로 진 헌 부 형제를 각각 택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 종갑 형제와 이 민기 형제가 장로 신권을 받았으며 박 지방부장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

운 일인가 잘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부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인다”고 그의 굳은 간증을 드렸다.

이로써 부산 선교부는 부산 지방부, 대구 지방부, 광주 지방부 외에 전주 지방부도 관리하게 되었다.

## '75년 마지막 스테이크 대회

1975년의 마지막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제1와드에서 열렸다.

앤드러스 지역 대표를 모신 가운데 가진 이번 대회는 상소 관계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10월 연차 대회에 참석했던 6와드의 오 광근 감독의 귀국 보고에 이어 스테이크 부장단, 앤드러스 지역 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또한 12명의 형제가 장로로 지지받은 뜻깊은 모임이기도 했다.

## 영남 부산 지방 대회

1975년도 4/4분기 영남 부산 지방 대회가 10월 11, 12일 양일에 걸쳐 부산 지부 예배당에서 열렸다.

한국 부산 선교부 발족 이래 두 번째로 갖는 이번 지방 대회는 지난해 7월 대회에서 부름을 받아 새로이 지방 부를 이끌게 된 이 병학 지방부장이 “이미 비활동이 되어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과 아직도 주님의 대열에 서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시온의 스테이크를 이루려는 우리들의 의지를 표현하자”고 권고하여 부산 전역과 진해, 마산 등지에서 400여명의 성도들과 구도자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토요일 오후와 주일 아침의 선교부와 지방부 역원의 연석 모임, 신권 위원회에 이어 주일 오전 11시부터 가진 일반 총회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제로 지도자들의 영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한 인상 선교부장은 이 지방 성도들의 오랜 영원이었던 동구 지부 건축에 대한 교회 본부의 승인을 발표하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한편 선교부 조직으로 잠시 공석이 되었던 지방부장단의 제1보좌에 신학 연구원 교수인 도 길회 형제, 제2보좌로는 지방부 평의원과 서면 지부장단에서 봉사해 온 김 치원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고 안 재석, 윤 덕병, 나 병선 형제는 지방부 평의원으로 지지 받았다.

이밖에도 박 순주 자매는 초등협회 회장, 국 수정 자매는 주일학교 유년부장, 정 옹환 형제와 김 봉기 형제는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 청남 회장과 보좌로 지지받았다.

또한 선교부 계보 담당자로 정 성해 형제, 교사 자질 향상 책임자로 황 금소 형제, 주일학교 회장으로 김 영우 형제, 초등협회 회장으로 윤 영자 자매, 음악 위원으로 배 나라 자매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